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 및 품질수준현황과 그 향상

The Status of Productivity & Quality level and the Productivity Improvement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辛 容 伯*
Shin, Yong Back

*공장관리기술사, 공학박사, 아주대 교수
겸 한국생산성학회 차기회장, 본회
홍보위원.
E-mail: ybshin@madang.ajou.ac.kr

The trouble of business managemen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ial companies in Korea are constituted by that average 26~29% of production management in the worst trouble of business management from 1973 to 1997.

A movement for higher productivity and quality is very important of the basis for industry society prosperity. Continuous productivity improvement have a right understanding of a conception of productivity and its effect that are removed an act before the trouble of higher productivity enforcement. The higher productivity is used by way of a welfare society.

1. 생산성 향상이념

생산성이 향상되면 그 결과는 원가(cost)의 절감으로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가격(price)의 인하가 가능하여 국내외 시장 확대가 용이하게 된다. 그리고 생산성향상의 성과는 자본주, 근로자, 소비자에게 공정 배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실질임금의 증대가 기대되며, 자본주도 더 많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고객만족의 안정된 소비가격을 기대할 수 있어, 기업 내부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생산성향상이 중요한 관리지표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동일한 생산물(서비스)이 보다 짧은 시간에 생산(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일 물량의 생산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여타 노동조건도 개선될 여지가 마련된다. 이렇게 하여 생산이 확대된다면 결국 전체로서의 고용기회가 증대되어 이른바 국가경제의 확대가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효과의 모든 것을

국민복지의 증진에 직결되어 있으므로써 생산성향상의 이념은 바로 국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여기서 생산성향상은 개별기업(공장)내로 한정하여 분석하여도 어떤 특정부문이나 특정인에 의하여 생산성향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내 전부서·전관계자의 전원 참여하에 기업문화적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원리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이의 효과적인 달성이 가능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추진될 때 항구적이고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품질 및 생산성향상을 저해하는 제문제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생산성향상에 있다. 현하 우리 수출공산품의 경우 국내외시장에서 바이어(소비자)의 첫째 구입조건은 품질과 가격에 의해 우선 선택되어지지만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근본은 생산성이란 기초 위에 있다.



최근 선진공업국 및 개발도상국들에 비교하여 우리 나라의 생산성과 품질수준은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는바, 이는 바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 되기에 품질 및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의 본질적 바탕 위에서 생산성 향상원리에 따라 생산시스템관리의 학문적 체계 유지와 시스템어프로치로 접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국내 제조기업의 실상과 아래의 사항들을 문제로 제기한다.

(1) 국내 제조기업 경영활동상 생산관리부문의 애로사항의 가중과 생산관리 전담 부서의 품질, 원가, 생산성 관리 수행을 위한 직무분담 불균형 및 관계전문요원의 관리 능력 부족

(2) 품질 및 생산성의 본질적 개념 몰이해와 품질 및 생산성향상의 의의와 효과에 대한 오해

(3) 정부 인허가사항 및 포상에 연계된 품질관리(QC) 및 품질경영(QM)수법 위주의 강조 등으로 우선 적용이 유도되어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을 위한 추진방법 및 제도의 규격화와 유효적 대응으로 생산시스템 관리체계의 불균형 조성

(4) 인간존중과 생산적 가치관의 미확립으로 노사관계와 근로의욕 및 작업개선의욕의 미흡

(5) 생산자(제조기업)측에서 소비자를 왕(고객제일주의)으로 생각하는 소명 의식 박약과 소비자를 위한 정성 및 협동적 태도의 결여 등

3. 세계 속의 우리 나라 경제좌표와 생산성 현황 수준

'97년도 말 기준 IMF 구제금융지원에 따른 경제의 초긴축 운영으로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는 4천 4백 62억 달러로 '70년도 및 '80년도에 각각 세계에서 33위 및 27위에서 순위 11위로 확정되어 국민 1인당 국민소득(GNI)도 1만 5백

48달러에 달해, '70년도 및 '80년도에 각각 세계 80위 및 61위에서, '96년도(10,548달러 기준)에 24위까지 성장하였지만, IMF 경제난으로 98년도엔 국내 총생산이 3천 1백 21억 달러로 세계 17위, 국민 1인당 GNI는 6천 8백 23달러선으로 후퇴하였다. IMF 경제난 직전의 실적인 '97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의 국민 1인당 소득 GNP 기준으로 9,618달러였을 때, 일본은 약 37,850달러였으며, 세계3위를 기록한 것이다.(IBRD - 98.10.6)

오늘의 제반 사회현상을 일본의 경우와 직접 대응하여 비교한다면 소득수준 차이로 인한 약 4배수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91년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GNP는 6,757달러였고, '92년도에 와서 아세아신흥공업국들 중 우리 나라가 겨우 7천7달러였으나, 여타 제국들은 1만 달러를 넘어섰고, 우리 나라는 95년도에 국민 1인당 GNP가 10,037달러로 1만 달러를 겨우 넘겼으나, 97년도에 GNP 기준으로 9,618(GNI기준=10,307)달러로 다시 1만 달러 이하로 하락하였고, IMF 경제난 이후 98년도 말에는 6,664 달러로서 1991년도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여기서, 서방 9대 선진공업국 및 한국 등 10개국의 '92년도 경쟁력 평가 결과를 독일경제연구소(IW)와 스위스·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의 분석을 토대로 정리한 보고자료(독일 경제주간지 : Wirtschafts Woche - '92.12)에 의하면 한국은 기술과 생산성은 최하위인 10위, 제품의 질도 「스페인」다음의 최하위인 9위 수준으로 선진공업국에 비하여 아직도 열악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99년도 국가경쟁력보고서(스위스IMD-'99.4)」에 의하여 평가대상국 47개국(OECD 및 신흥공업국) 중 우리 나라의 종합 국가경쟁력 평가순위는 38위(98년도 35위)이며, 8개 평가부문별 내용은 국제화부문 40위(98년도

46위), 금융부문 41위(98년도 45위), 국내경제 부문 43위(98년도 34위), 정부부문 37위(98년도 34위), 기업경영부문 42위(98년도 34위), 사회간접자본부문 30위(98년도 31위), 과학기술 28위(98년도 28위), 인적자원 31위(98년도 22위) 등으로 분석되었고, 전년대비(98년도 이후) 하에

〈표 1〉 연도별 제조업연관 성장지표

| 구분 | 연도 | '88 | '90 | '92 | '94 | '95 | '96 | '97 | '98 |
|------------------------|----|-------|-------|-------|-------|--------|--------|--------|-------|
| 1.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 | 10.5 | 12.4 | 9.3 | 9.4 | 10.9 | 11.5 | 12.9 | 13.0 |
| 2. 수출공산품 불량률(%) | | 3.1 | 6.1 | 4.5 | 2.8 | 2.5 | 2%선대 | | |
| 3. 주당 평균 근로시간(Hr) | | 52.6 | 49.8 | 47.5 | 47.4 | 47.7 | 47시간대 | | |
| 4. 임금상승률 | | 19.6 | 20.2 | 15.7 | 12.7 | 11.2 | 11.9 | 7.3 | △3.1 |
| 5. 해외비이더 수입선 전환 고려율(%) | | 17.0 | 31.0 | 44.0 | 60.0 | 65.0 | 미 | 확 | 인 |
| 6. 1인당 국민소득 (US \$) | | 4,295 | 5,883 | 7,007 | 8,220 | 10,037 | 10,548 | 10,307 | 6,823 |
| 7. 국내 총생산 경제성장률(%) | | 12.0 | 9.6 | 5.0 | 8.4 | 8.9 | 7.1 | 5.6 | △5.8 |

참고 :

- ① 재경원, 상공자원부, 노동부, 통계청, 공업진흥청,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노동기구(IL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발표자료를 인용·재구성(후용(伯叟)수)한 경향치 자료임.
- ② 1인당 국민소득 GNP 기준에서 97년도 이후에는 GNI 기준임
- ③ 96, 97년도 제조업 임금상승률은 제조업체 평균통상임금자료(대한상의98.3)
- ④ 99년도 경제성장률 8.8%, 소비자물가 상승률 0.8%, 연평균 환율 1200원대 일 때 1인당 국민총소득 8,682달러(한국은행 '99. 11추산)

종합국가경쟁력 평가순위는 물론, 일부부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평가부문에서 모두 전년보다 추락하였으며, 이는 지난 95년도 종합국가경쟁력 26위에서 96년도 27위, 97년도 30위, 98년도 35위, 99년도 38위로서 4년 연속 하락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특히 우리 나라의 연도별 제조업연관 성장지표는 다음 〈표 1〉과 같다.

'90년도에 들어서서 노사간의 신뢰감 박약과 대

립관계가 빈발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품질관리(품질경영)운동과 생산성 배가운동」도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본다면 본 운동의 활동개시 당시 설정한 목표대비 결과는 미흡하여, 본 운동이 내실보다 형식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88년도 3.1%였던 수출검사 불합격률이 '89년도에 4.2%, '90년도에는 6.1%로 높아졌으며, '91년도에 5.3%, '92년도에 4.5%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90년도 기준 일본의 경우는 1.5%, 대만은 2.5%였던 것이 '93년도 기준으로 일본은 1.0%, 대만은 1.2%, 우리 한국은 3.0%로 비교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 나라 수출상품의 무역클레임 발생원인 중 품질불량이 전체 클레임 발생 원인들 중 가장 높았으며 그 실상은 '70년대 하반기에 약 40%였던 것이, '85년도에는 53%, '90년도에는 60%선대로서, 국가적 품질향상운동에도 불구하고 세계 속의 우리 나라 품질수준에 문제가 있으며, 선진국상품의 품질수준 대비 평균 약 80%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생산성수준과 생산성 증가율의 연도별 동향은 일본의 생산성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수준이 약 4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주요산업의 선진국대비 생산성 수준은 약 80%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80년대 하반기에는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14%선을 유지하였고, 최근 '90~'94년도 중 연평균 약 10%선 이상의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동기간중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급격한 임금상승률(연평균 약 15%)이 범산업적 제조업 경쟁력 약화요인의 한 당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88년 이후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93년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7.6% 수준으로 분석 보고되어 '89년도(7.2%)이래로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89년도 범산업적



인 생산성배가운동을 위하여 『생산성배가 전국추진대회(세종문화회관 - '89.7.27)』시 '93년도 계획 목표사항은 '88년도 기준 부가가치의 배가와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을 17.6%씩 향상시키기로 하였으나, 목표평가년도인 '93년도의 생산성 증가율 실상은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액은 '92년도 기준 미화 16,982달러로 일본의 26%, 대만의 65%수준으로 조사분석(한은:제조업의 구조변화와 문제점-'94.1)되었으며, 계획당시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을 '88년도 기준 12,998천원에서 '93년도까지 26,553천원으로 연평균 17.6%씩 향상시키기로 목표 수립하여 '88년도 현재 일본의 27.4%인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을 목표 년도('93년도)엔 54.7%수준의 격차로 감축시키기로 계획하였지만, 그 결과는 크게 미달하여 목표평가년도인 '93년도의 물적 생산성 증가율은 7.6% 성장에 불과하였다.

다행히도 '94년도에 생산성증가율은 9.4%로 상승하였고, 그로 인한 국민 1인당 GNP는 8,220달러, 경제성장률은 8.4%로 상승되어 우리 국가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었고, 그리고 한국경제에서 최근년에 가장 호황이었던 '95년도는 생산성 증가율이 10.8%나 상승하여 9.3%의 경제성장률로서 국민 1인당 GNP가 1만 37달러에 도달하였으며 수출 1천2백억달러를 달성하였다.

'96년도의 생산성 증가율은 7.4%로 경제성장률 7.1%이었던, 국민 1인당 GNP는 1만 5백 48달러로 최고로 높았다가 '97년도 국민 1인당 GNI 기준으로 1만 3백 7달러, 98년은 IMF경제난으로 국민 1인당 GNI는 6천 8백 23달러로 하락하였고, 당분간 수년에 걸쳐 1만달러 이하의 수준에 IMF 경제난과 함께 IMF 경제난 직전의 원상회복 시기까지 침체국면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전국민적인 생산성향상 운동이 더더욱 요망된다.

4.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실시상의 당면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향상 실시상의 당면문제점들 중에서 주요한 사항들을 요약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우리경제의 고도성장기였던 '73~'83년 기간 중 경제성장에 대한 생산성 기여도가 36.6%에 불과하여 올바른 생산성향상의 의의와 효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73년도 아래의 「'73~'97년도 기업경영 애로요인 조사보고(대한상공회의소 및 각지방 상공회의소 조사보고서 발행)」에 나타난 바와 같이 IMF 경제난 직전까지 최근 27년 동안 『생산관리부문의 애로사항』이 전체 경영관리 활동인 「인사관리, 판매관리, 생산관리 및 재무관리」활동중의 26~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에서 비체제적 및 국부적인 생산관리활동으로 인한 생산의 비능률, 비경제성이 초래되게 되었다. 생산성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과거 생산투입요소의 양적 증대보다 질적 수준 향상에 중점노력을 함과 동시에 전 관계자(경영관리자와 근로자)들에게 생산성의 올바른 본질적 개념 이해와 그 향상효과를 바르게 숙지시켜 근로자에게 생산성향상이 노동력착취로 오해되지 않도록 사내교육을 충실히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관리의 학문적 본질과 체계에 순응하고 합리적인 생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재, 설비, 품질, 기술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IMF 경제난 이후 최근인 99년 10월 전국 1천 9백 9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최근기업의 경영애로요인과 경기회복 체감율 조사(대한상공회의소-99.10.5)에서 내수부진 21.9%, 판

매가격하락 14.7%, 원자재가격상승 13.8%, 자금 부족 11.3%, 수출부진 10.4%, 환율변동 8.0%, 인력부족 4.7%, 인건비상승 4.4%, 생산설비노후 3.8%, 수입품과 경쟁심화 3.6% 및 기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2) '88년 이후 IMF 경제위기 직전연도까지도 기업경영에로서항 중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인상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여기에 경영자는 노동생산성을 앞지르는 임금인상율에는 지불능력이 미약하고, 근로자는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일시적으로 원하는 대립관계로 한때 생산중단과 경영자의 투자욕 상실 등을 동시에 가져와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의 현실적 입장과 우리의 문화적 바탕 위에서 '74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였던 공장마을운동의 기본이념에 나타난 협동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원들을 가족처럼, 공장일을 내일처럼」 실행할 수 있는 공동운명체의 형성과 시대 발전에 부응한 전사적인 정신개혁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임금수준제고를 위하여 물적 생산성의 향상, 부가가치율의 향상, 노동분배율의 향상 및 가치혁신을 통한 제품 제값받기 등을 실현시켜 기업체질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3) 기업(공장)의 업무수행은 조직구성원들의 협동적인 시스템관계에서 조직 및 직무간, 공정간의 유기적 관계의 유지개선으로 이룩되는 바, 본질적 의미에서 협동의 분위기를 깨뜨려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이 곤란하여 조직체의 기능부실로 인한 생산성향상에 저해를 받고 있다.

협동적인 태도형성은 원만한 인간관계에서 성숙되며, 훌륭한 인간관계형성은 인간성존중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인간존중 사항에서 인간의 본질적 내면사항보다는 직업, 문벌 등 겉형식

에 치우친 인습과 혼란한 가치관이 산업민주화시대에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생산적 가치관의 확립과 인간자체를 바로 볼 줄 아는 분위기를 쇄신으로 과거의 형식적인 총화단합행사보다는 인간본성에 근거한 인간성존중과 인간관계 유지개선을 위한 인간존중경영을 위하여 산업심리학과 행동과학적 측면 등에서도 단계적 개선을 시켜 나가야 하겠다.

(4) 현재까지 널리 확산·심화된 듯한 우리나라의 품질관리(QC)활동도 학문적 좌표와 본질을 벗어난 TQC 및 TQM 만능활동의 인식과 함께 유행적이고 형식적인 활동과 품질분임조 활동이 곧 종합적품질관리(TQC) 및 종합적품질경영(TQM)이라고 오인하게 된 분위기 하에서 품질관리 및 품질경영의 진정한 기대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추세로 ISO 9000 시리즈 품질인증을 위한 QM시스템 구축에 과민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QC도입의 법적 근거(당시 공업표준화법 '61.9.30 제정공포)가 된 그때부터 38년이 지나게 된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품질과 생산성향상에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었고, 전국 규모의 QC활동추진실태조사(공진청:'87)에서 당시 전체 공산품제조업체(43,094)기준 9.4%의 업체와 상시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기준 43.7%에 상당한 4,064개 업체만이 QC를 도입하고 있다고 조사분석되었었고, TQC활동 추진업체는 겨우 14.2%에 불과한 현실로 품질 및 생산성향상에 연계적 기대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QC분임조 도입현황은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기준 약 66%수준이고 자발적 추진은 불과 3.0%이며, 활동상태는 보통 및 형식적인 상태가 83.2%수준 이었다.

그리고 그 활동성과는 불량감소 및 생산성향상 등의 유형의 효과 유발에 45.2%가 긍정적으로



분석되어 품질 및 생산성향상의 주요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품질관리의 학문적 연관관계와 좌표, 그리고 그 본질과 특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QC기법의 적용은 비법도 목적도 아닌 수단도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내표준화 바탕 위에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적품질경영(TQM : Total Quality Management)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가는 소비자 지향적인 합리추구로 처음부터 올바르게 행하는 인식전환과 제도개선을 기업체 스스로가 자각하여 국제적 추세와 수준에서 실행하여야 효과가 기대된다.

(5) 신기술 및 새로운 작업방법개발, 설비근대화 및 자동화부진,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투자의 욕망실로 인해 선진국 및 경쟁개발도상국에 비하여 '90년대 진입후 생산성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생산성격차가 증폭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기업인의 의식혁신과 함께 기술혁신을 위하여 한국의 주요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70% 정도의 기술수준과 기술개발수준의 상대적 저위 즉, 절대규모의 기술개발력지수로는 미국의 4.7%, 인구대비 상대적 지수로는 미국의 27.4%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의 향상을 위하여 시스템적인 다각경영전략하에 과감한 기술개발과 필요인력 양성 및 조직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이를 전제로 한 간이자동화(LCA)와 컴퓨터통합생산방식(CIM) 및 공장자동화(FA)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 이의 적극적 추진에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공장 내에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제 활동은 전체성과 상호관련성 및 목적성을 가진 시스템어프로치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주요 공산품의 품질수준은 선진국상품의 품질수준 대비 평균 약 80% 수준으로 평가

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외국에 비하여 50~90%범위로 평균 약 80%수준에 머물고 있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산업전반에 걸쳐 기술혁신 또는 시설의 자동화가 저위에 있어 제품단위당 소요노동시간의 단축폭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이며, 관리면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욕의 부족, 그리고 노동작업관리의 비과학적 요소에 따른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합리적인 경영 및 공장관리방법의 적용과 근로의욕을 앙양시키는 가운데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본원리와 그 향상효과의 올바른 이해를 기업문화적 바탕 위에서 공유하고, 생산성향상을 목표로 한 제반 경영합리화운동의 조직적 전개가 결국 종업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 산업사회의 번영을 가져온다는 대 전제하에서 제반 산업합리운동 및 사내 각종 경영(공장)합리화운동(TQM, TPM, 100PPM, 6시그마운동 등) 등의 지속적인 관리목표 중 제외할 수 없는 목표가 바로 품질향상과 생산성향상인 것이다.

5. 생산성 및 품질수준의 향상책

'90년대('88~'93년도)로 진입하면서 국내 제조업의 물적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10.0%로 일본·대만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동기간 명목임금상승률은 17.4%로 노동생산성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즉,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추이를 우리주변의 경쟁대상국들과 비교하여 보면 동기간 중 평균임금상승률은 우리 한국이 17.4%로 대만(12.0%), 중국(13.4%), 홍콩(13.0%)에 비해 높은 반면, 노동생산성은 10.0%로서 대만(8.0%)을 제외하면, 중국(16.8%), 홍콩(10.5%)보다도 뒤떨어져 임금코스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 분석 되었는바, 우리 생산성의 실상을 직시

하면서 평균 임금수준 향상의 원천도, 국제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가절감도, 근로시간단축과 여가창출을 위한 그 원천과 새로운 고용기회확대를 위한 확대재생산의 원천도 바로 생산성향상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영속발전을 위하여서는 조직구성원 각자의 자조·근면성과 부서간·공정간의 협동적 시스템으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생산성향상』을 강조한다.

“생산성향상”은 「산출/투입」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며, 단순한 산출량의 증대를 기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산출/투입」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원리」하에 해당 「방법론」을 경제적으로 선정, 그 방법론에서 합리적인 생산성향상 제 「기법」들을 적정 활용할 때 비로소 효과유발됨을 자각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품질향상”은 단순한 불량률 감소가 궁극의 목표가 아니고 고객만족(CS)을 위한 품질수준의 향상이다.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품질향상과 생산성향상 및 원가절감으로 개별회사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기업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되어야 한다.

「품질 및 생산성 향상책」은 과시적 형식이 아니고, 이들 각기의 학문적 본질과 그 향상원리에 적응시켜줄 때 경제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접수일 : 1999. 10. 7)

참고문헌

1. 신용백, 공장운영관리포인트, 도서출판 범한, 1999. 01.
2. 신용백, 경영관리와 품질경영(최고경영자과정교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1994. 03.
3. 신용백, 이동우, 90년대 공장새마을운동, 대한상공회의소·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 1989. 12.
4. 김기영, 생산성향상 그 개념과 전략, 한국경제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 1985
5. 신용백, 중소기업을 위한 효과적인 TQC 적용추진에 관한 연구, 안양상공회의소·안양지역경제연구원, 1985. 11
6. David J. Sunmamth, Productivity Engineering and Management, McGraw-Hill, N.Y, 1984